

「NHI 매거진(12월)」발간 기사 목록

vol.48

구성	주요내용
NHI News(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2022년 NHI HR 리더스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호주 등 참석, 실무경험 공유 및 소통 기반 협력 구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제10회 글로벌 HR 콘퍼런스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재개발의 역할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 제40회 HRD 콘테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훈련 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재원장, 국가인재원 교육수로 말레이시아 공무원 세미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디지털정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협력관계 확대방안 논의

국가인재원, 2022년 NHI HR 리더스포럼 개최

— 영국, 호주 등 참석, 실무경험 공유 및 소통 기반 협력 구축 마련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월 2~7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영국, 호주, 일본, 벨기에 등 15개국 17개 기관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인사담당자들이 참석한 '2022 국가인재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2022 NHI HR 리더스포럼)'를 개최했다.

2013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토론회는 3년 만에 대면 및 비대면 참석이 가능한 혼합(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는 공공인적자원개발(HRD)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렸다.

또 '대면·비대면 교육의 탄력적 적용 방안', '공직자의 지도력(리더십)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개발(L&D) 전략' 등의 소주제로 참가국별 토론과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을 통해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인적자원 분야의 전략을 모색하고,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을 공고히 다졌다.

특히 ▲한국 공무원과의 간담회 ▲연계협력(네트워킹) 회의 등을 통해 소통에 의한 협력 기반도 넓혔다.

벨기에 대표로 참석한 피터 반덴브루아이네(Peter Vandenbruaene) 연방총무청 지도력(리더십)역량개발 및 국제협력부장은 "동반성장과 긍정적인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발전적인 시간이었다"며 "전 세계 공공인사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지식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토론회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인재원은 이번 토론회 기간 중 튀르키예 앙카라 국립대와 영국 공무원 연수원간 업무협약(MOU)도 각각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각국은 공공인사행정 훈련에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에 대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토론회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 기반(플랫폼)으로 발전해 공공인재개발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유학 중인 50여 명의 개발도상국 공공 인사행정분야 공무원들도 현장 토론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국가인재원은 향후 국내 유학 외국 공무원들과의 토론회 연계 운영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인재원, 제10회 글로벌 HR 콘퍼런스 개최

— 급속한 변화의 시대, 공공인재개발의 역할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월 4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 미국, 호주, 불가리아 등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공공기관·학계 인사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국제 공공인적자원 학술대회(글로벌 HR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 공공인적자원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Building Forward Better: Public HR in an Era of Turbulence)'이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도널드 벨로미(Donald C. Bellomy)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대비하고, 역사적 교훈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발표와 토론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공 인적자원(HR)의 역할 ▲공공 인적자원 개발(HRD)의 새로운 도전과제 ▲디지털 전환 관련 공공부문 인재 개발 혁신사례 공유 등 3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장 배경과 공공부문 책임성 및 투명성 향상'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국 콜럼버스 주립대 이대우 교수가 '개인의 공공서비스 경험과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정부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심동철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준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각 '성과관리와 공무원의 적극행정', '공공인적자원개발(HRD) 혁신 경향 구조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각국 공무원 교육기관의 사례도 소개됐다.

국가인재원 박승립 교수는 '대면·비대면 병행(하이브리드) 교육 방법을 적용한 국가인재원의 공직 가치 내재화 교육 사례'를 발표했고, 호주뉴질랜드정부학교(ANZSOG,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School of Government) 크리스토퍼 워커(Christopher Walker) 부학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호주의 공공서비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재 개발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유튜브(인재키움TV)를 통해 생중계 진행됐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인재개발 전문가가 모여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 대응 경험과 사례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 인재 개발 혁신을 위해 세계 인재 개발 기관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재원, 제40회 HRD 콘테스트 개최

— 올해 공공부문 최고 강사·교육훈련 기관 선정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월 9~10일 진천 본원에서 '제40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경연(콘테스트)'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우수 강사와 교육과정 등을 선정, 시상했다.

1983년 중앙교관연찬경연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부문 내 우수 교수요원·교육기관 등을 발굴해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강의 기법·교육과정 등을 공유,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각 교육훈련 기관 담당자에게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국가인재원 유튜브 '인재키움 티브이(TV)'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했으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100여 명의 청중이 현장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대통령상(이유도 경위)



국무총리상(석리나 농촌지도사)

이번 대회에서는 ▲교수학습 ▲교육과정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경연을 통해 우수 강사, 교육기관, 연구자에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이 수여됐다.

교수학습 분야는 중앙경찰학교 이유도 경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석리나 농촌지도사가 각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유도 경위는 '의식격발 해결을 위한 사격 훈련'을 주제로 다양한 보조재를 활용해 사격 교정을 위한 효과적인 실습 교육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리나 농촌지도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학 이론과 국정과제에 대해 3가지 핵심어(No, Yes, Right)를 이용해 쉽게 설명함으로써 미래 행동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과정 분야 최우수 기관에는 '지능형지도자(스마트리더) 역량강화과정'을 외부환경□교육 수요자 분석을 바탕으로 재설계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인재원은 특히 온라인 선행교육을 진행한 후 대면 토의교육으로 이어지는 역진행 수업(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방식 등을 통해 현업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문서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국내공무원 교육동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정준재 지방행정주사가 최근 10년간의 공무원 교육의 창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한편, 올해는 최초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와 교육과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특징이 있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다양한 교육기술 기법과 전문·창의적인 연구·교육내용이 일선 현장으로 확산돼 공공 인적자원개발 혁신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 교육훈련 기관의 공동 발전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재원장, 국가인재원 교육수로 말레이시아 공무원 세미나 참석

— 한국 디지털정부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협력관계 확대방안 논의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신영숙, 이하 국가인재원)은 11월 23일 말레이시아의 '국가인재원 교육수료생 동창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신영숙 원장이 이끄는 한국 디지털정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말레이시아와 향후 협력관계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인재원 교육수료생 동창회'는 국가인재원에서 198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Executive Development Program for Malaysia, EDP) 수료생들이 2012년 자체 설립한 조직으로, 매년 말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육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올해 세미나는 2022년 동창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정책공유) 한국정부 담당자 초청 세미나 (친선우호) 한·말 화합의 밤 (사회봉사) 보호아동 학교 방문'의 세 가지 테마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다행히, 연말 팬데믹 상황이 다소 나아진 덕분에, 국가인재원 방문단은 2년 만에 말레이시아의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며, 지난 2년 온라인 참석으로 그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 서로의 정책을 배우고, 이해한 시간 : 세미나

○ 국가인재원 교육수료생 동창회의 핵심은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당해연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공무원들과도 그 내용을 공유하는 '세미나'이다.

○ 올해 세미나는 11월 23일부터 양일간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회복탄력성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미래산업과 인력개발투자, 업무 디지털화 전략, 디지털헬스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시아 측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총괄과 엄철민 서기관이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정책 방향',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김성일 기획전략과장은 '디지털정부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을, 보건복지부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한국의 디지털보건 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다토스리 모하마드 샤픽(Dato' Sri Mohd Shafiq) 인사행정처장, EDP 제1기 수료생 대표인 탄스리 삼수딘 (Tan Sri Samsudin) 전 내각 실장을 비롯하여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종래 말레이시아 공무원들만 참석하여 진행되었던 세미나는, 한국 공무원과 말레이시아 공무원의 상호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열띤 분위기를 유지하였다.

○ 세미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이 올해 교육내용을 정리·발표하는 시간에는 각기 인상 깊었던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 및 자율주행시스템, 스마트시티 등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 모하마드 샤픽 인사행정처장은 "한국과의 무역이나 투자유치보다 공공부문의 인재 교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며, 국가인재원 수료생들이 그 예시"라고 말하면서 국가인재원의 교육과 말레이시아-한국의 교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국의 디지털 보건 전략 관련 보건복지부 황의수 과장 발제



현업적용 사례 청취 및 공유 세션

□ 국가인재원의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은 1984년, 한국과 일본을 보고 배우자는 마하티르 당시 총리가 주창한 말레이시아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올해까지 1,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 과정은 지난 40년의 기간 동안 시대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무원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공공서비스 혁신 및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수료생 동창회는 말레이시아 유력 전현직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오랜 친구, 더 깊은 우정을 위하여 : 한·말 화합의 밤

○ 말레이시아 교육수료생 동창회는 한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2022년 동창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여, 동창회는 '한·말 화합의 밤' 행사를 11월 23일 푸트라자야 에베리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자는 뜻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각자의 전통의상을 입고 참가하였으며,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축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양국 대표단은 함께 초대형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모든 참석자들이 한 조각씩 나누며 40년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말레이시아 화합의 밤

○ 동창회와 한국 대표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동료이자,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11월 25일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가정 형편상 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간 학용품도 전달하였다.



동창회 사회봉사활동

○ 동창회 측은, 이번 한국대표단의 방문이 동창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앞으로 동창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면서 한국과 더욱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 한편, 국가인재원장은 말레이시아 공무원 교육과정 담당기관인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장, 국가인재원에 대응하는 말레이시아 국립행정연수원장을 만나 2022년 교육운영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한·말 교육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면담은 2023년 동방정책 40주년을 앞두고, 정부 간 인적 교류, 전문가 파견 등 더욱 깊이 있는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말레이시아 측은 디지털행정, 기후변화, 고령화 정책,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국의 전문가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현재는 말레이시아 공무원의 한국 방문 연수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공무원의 말레이시아 방문 연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이 서로의 정책을 이해하고 환경변화와 함께 점차 확대되어 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가인재원장-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장 면담



국가인재원장-말레이시아 국립행정연수원장 면담

○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말레이시아와 오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말 정부 간 인적교류의 가교역할을 하며 말레이시아 정부와 더욱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동방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2023년 동방정책 40주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재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